

자본잠식 태영건설株 거래정지... 상장폐지 위기

빠르면 이달 중 외부 감사 통해 상폐여부 결정 태영측 “자본확충으로 경영정상화 최선의 노력”

태영건설 주식이 14일부터 매매 정지된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태영건설은 2023년 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5626억 원 잠식되었다고 공시했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총량이 반영된 결과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3월 중으로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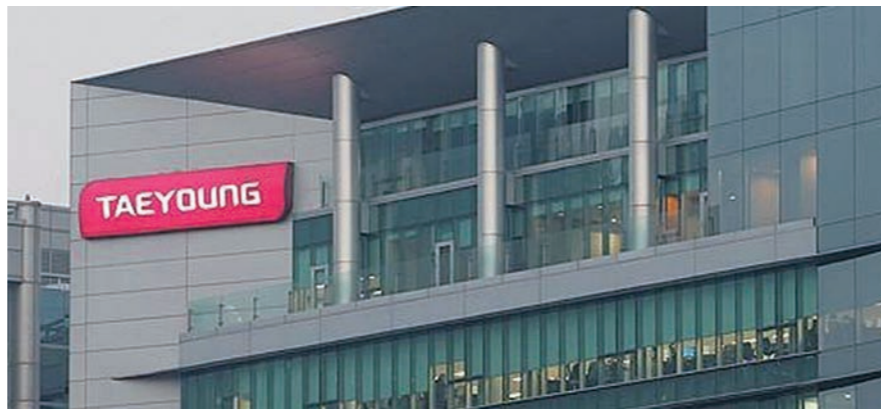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상장폐지는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



태영건설 본사 건물.

연합뉴스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제1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의회의 연장이 가능한 기간 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건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psh@skyedaily.com

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공정위 “비구성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시정·과징금 43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및 대여배차를 제한하고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 및 그 지급일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또 2020년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앓고 보다는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증가하면서 배차 수

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배차 등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거래 여부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건설기계 운행 금지-집회 또는 출입 방해하는 등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중단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내리막길

지난해 거래량 3395건... 전년비 33.1% 감소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4일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거래금액은 1조4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3.1%·34.1% 줄어든 것이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3조4288억 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거래액은 58.3% 급감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4분기에 전국에서 이뤄진 거래건수는 총 658건·거래금액은 2646억 원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

치다.

지난해에는 1분기(813건·3347억 원) 대비 2분기(960건·4073억 원)에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3분기(861건·3843억 원)와 4분기(761건·3034억 원) 모두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수는 총 1325개로 전체의 82.2%인 1089개가 수도권에 있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035건·거래금액은 1조3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2%·34.5% 감소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48%가 위치한 경기도의 거래액은 7549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밑돌았다. 서울 역시 거래액(4720억 원)이 5000억 원을 밑돌며 2020년 이래 최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유니테크빌벤처타운.

나무위키

수준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32.1%·28.4% 줄었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3.3㎡당 가격은 1645만 원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0.3% 올랐다. 서울이 2663만 원으로 1.7% 올랐고 경기도는 1495만 원으로 0.5% 상승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3년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공급이 많은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 등은 공급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skyedaily.com

‘여의도 한양’ 수주 공들이는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 “명실상부 초격차 랜드마크로 지을 것”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사업지를 둘러본 윤 대표이사는 13일 현장을 방문해서 임직원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현대건설만의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등 해외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업인 여의도 한양에 대표이사가 방문한 것은 해당 사업장이 현대건설 주택사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업

지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도시 계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최고 56층 이하·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종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최초의 디에이치 사업장 수주를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이사는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사업제안을 반드시 지키고 현대건설만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

